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양계의무자조금 거출 시작

농가, 업계의 관심과 협조가 사업 성공의 지름길

지난 6월부터 양계(육계, 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사무국을 양계협회 내에 두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육계도 양계협회 담당직원을 활용하여 홍보 등 거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조금 사무국 및 협회에서는 이미 전국의 육계 및 산란계 도계장에 시행을 알리는 공문 및 포스터 등을 6월 이전에 발송한 바 있으며 전국 산란계, 육계 농가에도 홍보 팸플릿을 송부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기대 이하의 거출율을 보이면서 양계인은 물론 관련업체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계의 경우 수납기관인 도계장에서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통을 통한 임대계 등 복잡한 도계 시스템으로 인해 거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조금 거출을 요구하는 도계장으로는 농가나 유통상인들이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어 거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계의 경우에도 계열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 계열화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자조금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계열사들의 입장(?) 때문에 협조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분석이다. 계열사들이 협조에 미온적인 이유는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책정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계장에서 거출시 도계수수가 투명해져 세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계열사중 (주)체리부로에서 자조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도계장만 협조하면 생산자들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것도 자조금사업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 모두 도계장과 생산자들의 협조와 참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인 만큼 원시적인 관점에서 양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전국 종계 · 부화장 질병 모니터링 검사 실태파악 후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종계장과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가금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농장은 전국 원종계장(12개소), 종계장(342개소, 부화장(180개소), 삼계용 씨알생산 농가(50) 등 584개 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총 7억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가금티푸스와 추백리를 비롯해 마이코플라즈마(MG, MS), 닭전염성 빈혈, 닭뇌척수염, 뉴캐슬병,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닭봉입체성 간염) 등 8종에 대해 항체 및 항원검사를 통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단 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원종계장과 종계장의 추백리·가금티푸스, 닭 마이코플라즈마 혈청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로 대체된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달 15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두고, 검사대상 농장들이 모니터링 검사에 협조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국의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맡게 된다.

이러한 검사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농장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계대 질병을 막고 질병 청정화를 통해 건강한 양계산물을 생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도태장려금 책정 등 방안 마련 없이 양성계에 대해 도태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반응이다. 이미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의 경우 양성율이 2% 이상인 계군에 대해서는 이미 도태 및 종계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도태장려금이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진행시 재조합정전염병인 ND의 경우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혈청검사판정기준에 미부합시 과태료 처분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도태장려금 등 기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가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아직 백신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질병(닭아데노바이러스 등)에 대해서는 백신공급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 농가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검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검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검사가 단속측면보다는 종계장 실태파악이 목적이며, 질병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난계대 종합방역 대책을 통해 종계장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볼 때 질병 청정화를 위해 '채찍과 당근'을 주듯이 보상을 충분히 하고 보험 및 가축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근절시킨 사례를 볼 수 있다.

종계장 및 부화장 등에 대한 난계대 전염병의 감염실태 조사를 통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난계대 전염병으로 인한 산란계 및 육계농가 등의 질병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를 충분히

히 살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가며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8년도 육계, 계란 생산비 발표

육계 kg당 1,097원, 계란 10개당 1,155원

통계청에서 지난해(2008년도) 축산물 생산비를 발표하였다. 전 축종의 생산비가 국제곡물가와 환율상승이 배합사료비 증가로 이어져 높게 상승한 가운데 특히,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육계, 계란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를 보면 육계의 경우 kg당 1,097원으로 전년 930원보다 149원(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의 경우 10개당 1,155원으로 전년 880원보다 275원(31.3%)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농가소득 역시 산란계 소득은 마리당 전년 1,786원 적자에서 36원 흑자로 돌아섰으며, 육계는 전년 282원에서 56% 증가한 440원으로 발표되었다.

실제 농가입장에서는 사료가격 등 제반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비해 농가 소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생산비 또한 낮게 발표되지 않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계란 평균 가격을 보면 특란 10개 기준 1,272원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농가 수취가격은 최소 평균 개당 30원 이상의 할인(DC)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제 1,000원 이하의 가격을 받은 꼴이 되므로 농가의 경영은 어렵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육계 역시 kg당 육계 평균가격은 1,568원으로 생산비 1,097원보다 높게 나타나 산란계 보다는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농가에서 느끼는 생산비는 kg당 1,500~1,600원(심지어 1,700원까지도 주장)으로 실제 소득면에서는 적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발표와 농가들이 생각하는 수치와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문제는 정부의 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통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조사에 어딘가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주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분회에서 가금수급위 자금을 활용해 기초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통계청은 1년 동안 전국의 산란계 140호, 육계 130호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생산비를 집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사방법 역시 관련자료를 표본 농가가 직접 작성하거나 조사원이 매주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면접청취를 하고 기장상태를 점검하여 조사내역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가에서 양계관련 통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정확한 통계 및 데이터를 통해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농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양계**